

미국 여론지도층, 원자력발전 지지

찬성71% 반대11%, 압도적지지로 나타나

최근 미국의 Cambridge Reports/Research International사가 여론지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기저부하 전원(Base Load Electricity)으로서 원자력발전을 압도적으로 지지(찬성 71% 반대 11%)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계층은 이번조사에서 개량형 원자로 설계를 위한 연구개발을 촉구(찬성 77% 반대 14%)하는 한편, 영구 방사성폐기물 처분장건설과 부지선정 문제를 신속히 처리(찬성 83% 반대 7%)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3월에 연방 및 주의회의원과 공무원, 사업가, 공공기관, 언론 및 학술단체 등에서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실시하였다.

한편 Cambridge Reports사가 5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미국 성인의 50%가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린 반면 26%가 낮게 평가했다.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RNC)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지 응답자의 7%만이 알고 있었으며, 개발중인 개량형 원자로에 대해 미국 원전 제작자들의 인지도는 찬성 66%, 반대 28%로 나타났다.

〈우리잡정보센터(UIC)Newsletters〉

CO₂레이저 發振器 개발 電氣研

최첨단 수준, 국내 첫 개념設計
항공, 우주, 自動車 산업등 광범위 사용

출력 2.4KW급인 이산화탄소(CO₂)레이저 발전기가 국내에서 개발됐다.

지난 11월말 한국전기연구소는 고전압연구실 趙淵玉실장팀이 개념 및 상세설계를 자체적으로 수행, 주식회사 成龍電機와 공동으로 이 발전기를 국산화했다고 발표했다.

출력 2.4KW급은 美國, 日本등 선진국에서도 최근야야 실용화한 최첨단수준으로 항공우주 전기전자 자동차산업등에 필수적인 가공기로 쓰이고 있으며 이번 개발로 수입대체가 가능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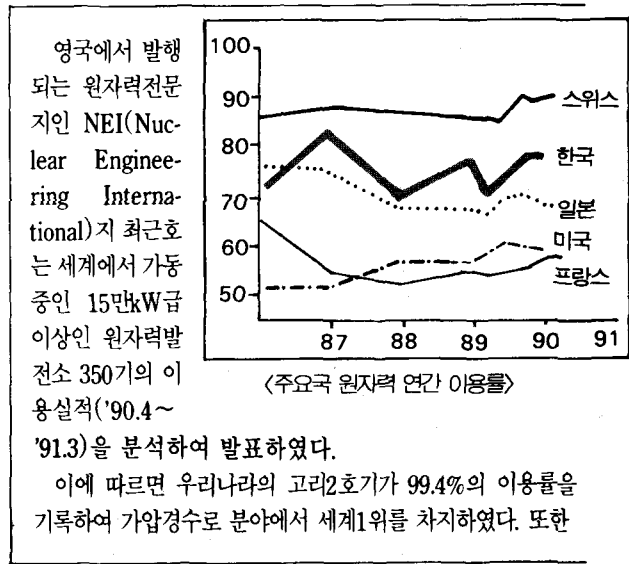
전기연구소는 이번에 확보한 기술을 바탕으로 20KW급의 대용량 CO₂가스레이저 발전기의 국산화도 추진키로했다.

한국에 청정에너지 기술이전

서방 선진국서 논의 있는 듯

우리나라는 청정에너지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서방측 계획에 동남아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참여할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1월 18일~20일까지 「시드니」에서 OECD와 IEA(국제에너지기구)의 공동주최로 열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석탄, 환경 및 경제발전」에 관한 국제회의의



原子力문화진흥재단 설립

내년上半期발족, 弘報활동 전담

정부는 내년상반기안으로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전담할 가칭 원자력문화진흥재단을 설립키로 했다.

11월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동자부 과거처 한전등의 관계자들로 원자력홍보기구 설립준비반을 구성, 내년상반기중 공익재단을 발족시킬 계획이다.

새로 설립될 원자력문화진흥재단은 동자부 한전과 과거처 원자력연구소등으로 분산돼있는 원자력홍보업무를 통합, 원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al, the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서방선진국 관리들에 의해 밝혀졌다.

이 회의는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각종 산업시설의 방출가스를 억제하기 위해서 기술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모임인데 여기에서는 앞으로 유해가스 억제의 성공여부가 선진공업국뿐만 아니라 후발국의 노력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서는 특히 신흥공업국이 경제발전을 도모하면서 환경보전의 중요역할도 담당해야 한다는 명제가 강조되는 동시에 청정에너지의 기술이전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석탄사용에서 오는 이른바 온실효과가스(GHG/Greenhouse Gas) 방출억제의 관련대책과 기술개발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이용률, 경수로 세계 1위 고리2호기

전체 원자로부문 평가도 2위 차지

비등경수로, 가압중수로, 가스냉각로, 개량형 가스냉각로 등 주요 5개분야 원자로 전체를 망라한 평가에서는 99.8%인 일본의 「가시와자키 가리와」5호기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였다.

NEI지는 매년 전세계의 가동중인 원전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실적을 분석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가압경수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고리 2호기는 '90년 3월 24일부터 올해 4월 14일 핵연료를 교체하기 위하여 정지할 때까지 단 한번의 정지도 없이 387일간을 연속 운전한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다.

자력에 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넓히는 홍보활동을 전담하게 된다.

이 재단은 원자력발전의 안전성과 주변지역의 환경문제 등에 대한 조사연구용역사업등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재단의 설립운영에는 연간 25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발전원가와 환경문제를 감안할때 원자력발전소의 지속적인 건설이 불가피한데도 주역주민과의 마찰로 건설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있어 원자력에 관한 올바른 인식이 절실한 과제라고 판단, 공익재단의 원자력홍보기구를 설립키로 한 것이다.

電力저장시스템 개발 韓電技研

내년엔 MW급 개발 착수, 97년 완성

韓電기술연구원은 한국전기연구소와 공동으로 축전지자를 이용한 전력저장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한전기술연구원 발전연구실 신에너지연구팀(책임연구원 嚴永昌)과 한국전기연구소 배전연구실 연구팀(책임연구원 金豪濬)은 지난 89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2억7천만원의 연구비를 투입, 연구를 수행한 끝에 이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

전력 저장전지시스템은 2차전지에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저장했다가 필요한 때에 전기에너지로 다시 변환시켜 사용하는 장치로 전력수요가 적은 심야의 값싼 남은 전력을 저장했다가 수요가 많은 낮에 이용함으로써 전력부하평화를 이루고 비상시나 정전시 예비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전기술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 20KW급의 기본설계를 하고 관련 주요 장치인 계통연계용 직·교류 변환장치와 개량형 연속전지 그리고 중앙감지제어장치 및 응용소프트웨어를 국내주요업체와 제휴하여 공동으로 설계 제작하고 이를 한국전기연구소 구내에 30평 규모의 실험실에 설치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끝냈다.

한전기술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실용화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을 수립, 92년에 MW급 시스템의 연구개발에 착수, 96년까지 5년동안에 신형전지 개발, 계통연계기술 개발을 비롯한 시스템 설계, 제작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전기술연구원은 이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오는 97년에는 실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최대 태양열발전회사 도산

세계최대의 태양열發電회사 「라즈·인터내셔널」(캘리포니아주 웨스트우드市 소재)사가 파산됐음이 12월초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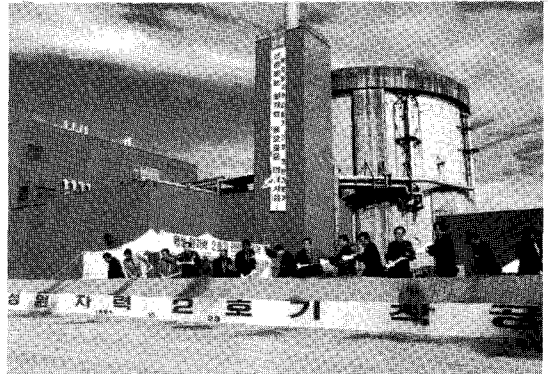
이 회사는 현재 회사를 再生시키기 위해 2개 자회사의 처분을 결정해놓고 있는 상태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모하베」사막에 1만KW급 「미러필드」형(타워 집광방식)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는 시스템 제어등 소내전력을 많이 쓰며 투자액이 큰데다 발전비용이 많이 들어 운영난을 겪어왔다.

거기에 연방정부의 특별감세혜택이 불충분했고 미국내의 천연가스 값이 하락하고 있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었다고 한다.



〈태안화력 부지정지공사 착공 첫 삽질을 하고 있다〉



〈월성원전 2호기 부지정지공사 착공 첫 삽질을 하고 있다〉

한국전력

月城原子力 2호기 착공
70만kW 칸두형 97년준공

月城原子力發電所 2호기가 지난 10월 23일 기초착공사에 들어갔다.

월성원전 2호기는 70만kW급 캐나다 중수로형 발전소로서 내자 9,993억원과 외자 4억 1,300만달러 등 모두 1조 1,00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 오는 199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83년에 준공된 1호기의 운전경험에서 얻은 설비개선사항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안전성을 더욱 높였으며 1호기의 계약자 주도형에서 사업자 주도형으로 전환하여 한전이 종합관리를 맡게된 이원전은 플랜트종합설계와 원자로계통설비는 캐나다원자력공사가 주계약자로 터빈발전기는 한국중공업이 주설비 시공은 현대건설이 각각 건설에 참여한다.

월성원전 2호기가 준공되면 약 5억 kWh의 전력을 생산해 600만배럴의 석유 대체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모두 3천 700만kW의 시설을 갖추게되어 예비율 22.3%의 안정적인 전력공급능력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지역본부의 간판을 내걸고 있다〉



泰安火力발전소 착공
50만kW 2기 95년준공

태안화력발전소가 지난 10월 31일 부지정지공사에 들어감으로써 본격적인 발전소건설에 착수했다.

태안반도의 서북쪽에 위치한 태안군 원북면 방길리 일대의 육지 51만평과 공유수면 142만평 등 모두 193만평의 부지위에 들어서게될 태안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은 50만kW급 1, 2호기 건설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후속기 6기를 건설할 예정인데 전체 시설이 완공되면 총용량 400만kW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유연탄 화력발전단지를 형성하게 된다.

그동안 주민들과 보상협외에 어려움을 겪어 예정보다 8개월이나 늦게 착공되어 한국전력은 공기민화를 위해 건설에 박차를 가해 9천 980억원을 사업비로 투입 1호기는 1995년 6월에 2호기는 1996년 2월에 각각 준공할 예정이다.

서울地域本部 발족
在京12개支店 통할관리

서울지역 12개지점을 통할관리할 한전서울지역본부가 지난 11월 4일 한전을지로 별관에서 현판식을 갖고 발족하였다.

지방화 민주화의 사회적추세에 따라 재경12개 지점의 자율적인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서울이라는 특수지역을 총체적으로 이끄는 동시에 일관성있는 정책수

행을 위해 발족한 서울지역본부는 궁극적으로는 양질의 전기공급과 수송기봉사를 강화하기 위해 발족하였다.

한전은 이번에 기구를 크게 개편, 서울지역본부를 발족하면서 기획실 운영실 기술실 등 3개부서를 두고 업무를 개시했다.

(주) 油 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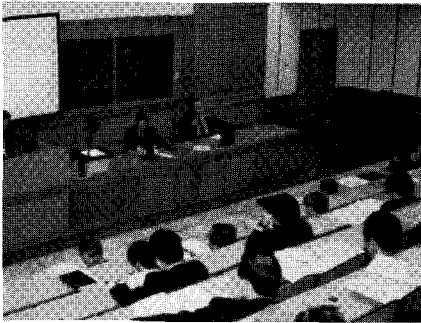
프레온가스대체물질 개발
메틸사이클로헥산 생산

주식회사 유공(대표 金恒德)은 오존층 파괴물질인 프레온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메틸사이클로헥산의 시험생산에 성공했다고 지난 11월 20일 발표했다.

메틸사이클로헥산은 인쇄회로기판을 비롯하여 각종 전자부품의 세정제와 수정액용제로 사용하고 있는 프레온가스, 트리클로로에탄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다.

CFC사용규제가 세계 70여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국내에서도 사용량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번에 유공의 메틸사이클로헥산 개발은 대체물질개발을 가속화시키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메틸사이클로헥산은 BTX공장에서 나오는 톨루엔을 원료로 한 세정제로 현재 미국 독일 일본 헝가리등 4개국 4개사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유공은 이번 시험생산 성공으로 연 3만 5천톤의 생산설비를 갖추고 내수시장 개척은 물론 수출도 할 계획이다.



子力평화이용韓蘇세미나에서
열리고 있는 金善昶부회장)

한국원자력산업회의

韓·蘇原子力平和利用세미나

한국측 19명 대표참석

모스크바서 진지한 토론회 열
러

제1회 韓·蘇 原子力平和利用 세미나가 지난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소련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는 지난 4월 한·소 민간원자력각서가 조인된후 처음으로 개최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金善昶부회장을 단장으로 19명의 대표단이 참가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양국에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및 운전경험, 안전규제활동, 핵연료주기, 원자력국민이해사업 등에 대한 1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한국대표단은 세미나가 끝난후 소련의 쿠르차토프원자력연구소와 핵연료생산공장 물리공학연구소 칼리닌원자력발전소 등을 시찰하여 양국간의 원자력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했다.

한국가스공사

LNG수입자그룹서울총회

13개국 130여명참석
한국위상높이는데 기여

한국과학기술원

智能로봇 개발

無人自動化공정에 활용

무인·자동화공정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감각기능을 갖춘 지능형 이동로봇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인공지능연구센터시각정보처리연구실팀(팀장 梁女承 전산학과 교수)에 의해 1년 6개월의 연구끝에 개발되었다.

이번에 개발된「CAIR-1」이동형로봇은 단순작업이나 쓰이던 기존로봇과는 달리 시각정보를 사람의 눈과 같은 속도로 처리할 수 있고 초음파센서를 이용 장애물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게 설계

되어 주위환경에 자율적으로 적응이 가능해 2세대 로봇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로봇은 거의 한곳에 고정되어 단순동작을 되풀이 하는 이른바 1세대 로봇인데 비해 이동형 로봇의 개발은 사업자동화 항공우주개발 등에 폭넓게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동안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시각정보처리를 통한 환경감지와 장애물 통과기술의 어려움이 많아 뚜렷한 연구실적이 나오지 않았으나 이번의「CAIR-1」개발은 세계로봇사업계에서 획기적인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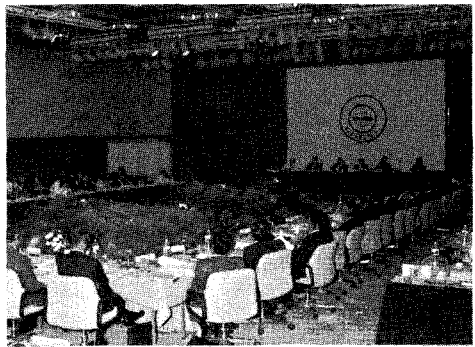
국제LNG수입자그룹 제21차 年次總會가 미국 영국 일본 등 13개국 38개 회원사대표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측대표인 韓國가스公社 주최로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서울신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20일에는 회장단회의가 개최되고 21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쳐 4차의 본회의를 열어 ① 각국별 에너지수급현황 및 에너지정책에 대한 토의 ② 국별, 회원사별 LNG등 천연가스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보고 및 토의 ③ LNG매매계약 및 LNG 수송관련 정보교류 ④ LNG관련 분야 주요 기술사항에 대한 연구결과발표 및 토론 ⑤ 천연가스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관련 타국제기구의 활동 등 의제를 심도있게 토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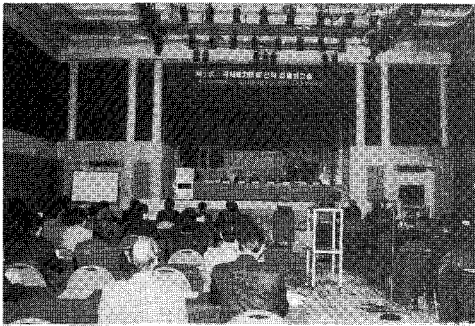
이 회의는 24일에 平澤LNG基地를 시찰하고 폐막되었는데 이날 환송식에서 한국가스공사 李經植사장은 이번 총회에서 집결된 귀중한 경험과 지혜를 천연가스사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당면과제인 에너지수급안정과 환경보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하고 우리 모두의 공동목표를 현실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

자고 강조했다.

이번 서울총회는 LNG수입국으로 가입한지 7년밖에 되지않은 한국이 국제회의를 유치하여 주요회원사와 국제협력기반을 구축하고 기술교류확대, 주요정보자료의 입수, 천연가스 보급확대 등의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LNG업계에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위상을 크게 제고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각국대표 130명이 참석한
국제LNG수입자그룹 서울총회광경>



<국제전력기술 워크숍광경>

亞州大 에너지문제연구소

1차국제전력기술워크숍
발전소 수명관리등 논의

이주대학교 에너지문제연구소는 지난 11월 8일 국내외 원자력관련 6개업체의 후원을 받아 제1차 국제기술 워크숍을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은 에너지문제연구소 鄭根漢소장의 개회사와 한국전력공사 張基玉부사장의 환영사로 시작되어 한전의 林漢快처장, 崔長東처장, 한기 유주영상무, 한보 한국석처장 등 원자력산업계의 중견인사들이 4분과의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이날 워크숍은 ① 원자력발전소 수명 연장 ② 발전소 전문가 시스템 ③ 증기 발생기 예방보수 ④ 발전소 선진운영기법 ⑤ 증기발생기 손상 전략적 평가모델 ⑥ 안전성관련계통의 고장진단 ⑦ 원전 관리의 종합적접근등의 주제로 오전, 오후에 걸쳐 주제발표와 참가자의 활발한 종합토론이 있었다.

이 워크숍은 그동안 발전소 설계 및 건설에 치중되어 있던 기술적 관심도를 발전소의 효율적관리로 확대하여 전력분야일선에서 종사하고 있는 실무기술자들이 기술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발전소 수명관리"에 대해 중점 토론을 벌였다.

이번 워크숍은 특히 산·학·연의 상

호 협동으로 개최되고 미국, 프랑스, 영국의 원자력발전 전문 엔지니어링업체인 유포테크사의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져 외국의 기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原子力규제 정보교환
技術協力 협정 체결

李相蕪원장과 캐나다 원자력규제위원회(AECB/Atomic Energy Control Board) Rene J. A. Levesque 위원장은 "원자력규제에 관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위한 협정을 지난 9월 22일 체결하였다.

이 技術協定은 지난 7월에 열린 제9차 한·캐原子力共同調整委員會에서 새로 도입될 月城원자력발전소 후속기(CANDU형 원자로)의 안전규제 방안을 설정하고 앞으로 기술협력 및 정보교환을 위해서 관련기관간에 기술협정을 맺기로 합의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협정의 주요내용은 규제기준 및 기술 기준,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방사선방호 및 폐기물저장, 원자력시설의 부지 건설, 기술교환 등으로 이협정의 체결로 CANDU형 원전의 수출국인 캐나다의 원자력규제위원회와 직접적인 협력이 가능케 되어 국내의 重水炉原電의 안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李원장과 레베스쿠위원이 서명>



한국전력보수(주)

전사업장에 데이터통신망

보다 원활한 기초에너지 공급에 기여

한국전력보수(주)는 주전산기가 구축되어있어 전국 사업장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을 지난 10월 말 가동하기 시작했다.

경인,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울산, 강릉지역등 7개 권역으로 나뉘어 구축되고 있는 이 데이터 통신망은 본사와 인접한 경인지역 사업소는 본사와 직접 연결하고 나머지 6개 권역은 데이터 통신망 거점사업소를 지정하여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전력보수(주)의 온라인화 시대를 연 정보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한전보수(주)는 앞으로 보다 신속하고 짜임새있는 전력시설의 보수업무를 수행할 수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한국전력기술(주)

27회 전력그룹워크숍
전력산업정책·기술의
진보등 논의

지난 10월 8일 한국전력기술(주)의 주최로 전력그룹협력회 제27회 워크숍이 서울 올림픽 유스호텔 올림픽아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워크숍은 동력자원부 및 전력그룹사 관계자 240여명이 참석하여 "전력산업 정책과 기술의 진보"에 대한 주제 발표와 진지한 토의가 깊이있게 진행되어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이 정책에 반영되고 산업계에서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과학기술협정 체결 소련 카자흐공화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朴源禧 원장은 지난 11월 14일 소련 카자흐공화국의 「술탄 가진」 과학원장과 상호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카자흐과학원은 200여 연구기관에 2만 8천여명의 연구원을 갖고있는데 KIST와는 기계, 재료, 로봇, 캐드캠분야의 연구협력으로 과학기술분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련은 일반산업기술은 비교적 뒤져 있으나 군사기술과 병기제조기술등이 앞서있어 이 분야를 산업분야에 원용할 경우 상당한 기술진전을 이룩할 수 있는 소지가 크며 또한 중화학, 중공업 분야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뛰어난 과학기술을 보유한 부문이 많아 이를 우리 산업분야에 접목할 경우 우리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련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산업분야의 기술을 수입해 갈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번 협정은 이러한 길을 넓혀가는 디딤돌이 될것으로 보인다.

울진原電 3.4호기 자문계약 설계, 용역, 관리부문 「백텔」과

울진원자력 3, 4호기 종합설계용역 국외하도급 2차분 자문계약이 지난 10월 25일 한국전력기술(주)와 미국의 Bechtel International, Inc. 간에 체결되었다.

지난 7월 22일 미국의 S/L사와의 전반적인 설계자문계약에 이어 두번째인 이번 사업관리분야 자문계약은 韓技와의 업무경험 및 관리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있는 미국의 백텔사로 결정되어 2차 자문계약이 체결되었다.

포항종합제철(주)

발전설비 정기점검제도 개선 내년부터 정비계획에 반영

포항종합제철은 현행 발전설비 정기 점검주기가 합리적이지 못한 점을 고려, 수리주기와 일정을 단축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현재 매년 1회 정기점검을 위해 발전용 보일러를 용량에 따라 25~45일 동안 대수리를 실시하고 설비안전검사를 받고 있으나 이것을 정기수리 즉 중수리의 소수리 개념을 도입하여 현행 법제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대수리 주기를 2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중간년도에는 보조기기를 중심으로 10~15일의 공기로 정기수리 및 소수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로서 우리나라 업체가 주계약자가 되고 프로젝트의 일부가 외국업체에 하도급계약되는 주체적형태의 건설방식은 완전히 자리가 잡혔다.

한국수자원공사

국내최초 藻類除去船가동 内水面 수질개선에 기여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저수지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藻類除去船을 제작하여 지난 11월 31일 大淸潭 현장에서 進水가동에 들어갔다.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일본 東京理科大学 「요시노 겐야」(吉野善彌) 교수의 기술자문으로 1년간의 연구끝에 약 6억원의 제작비를 투입 자체 제작한 이 조류제거선은 길이 15m 폭 7m로 이끼·수초류가 자라고 있는 수면을 이동하면서 고성능 연속식 여과장치를 가동시킴으로써 이끼·수초를 제거 탈수하고 잔류물을 Cake화하여 유기질비료로 처리, 전담이나 원예용으로

이러한 중수리 및 소수리는 설비운용이 안정되면 전사적인 발전설비 이용률이 약 3%(33MW) 증가, 연간 약 45억원의 전력비 절감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같은 절감계획은 발전용 보일러 및 터어빈에 대해 조업 정비실적과 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일본 실적과 비교 평가한 결과 발전용 보일러는 플랜트당 연간 사고건수가 0.005건으로 일본의 10년간 연평균 0.037건의 13%수준이고 사고내 용도 조업초기 설비 시운전시 발생된 시공 및 설계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 이어서 현행 설비 정기점검 주기를 계속 적용하기에는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수립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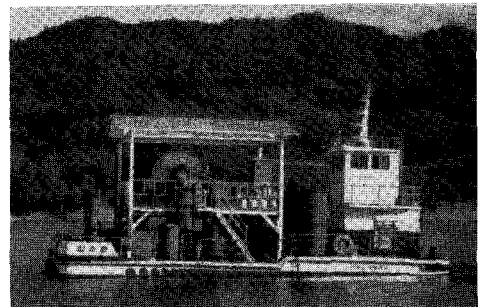
포철은 이 계획에 따라 금년 중에 세부 정기점검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정비 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할 방침이다.

재활용하게 된다.

KOWACO-FILTER 1호로 명명된 이 선박은 7월부터 10월까지 여름철에는 1개소당 7~10일간 10~14개소에서 수면의 조류를 제거하고 11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3~4개소의 저수지면의 바닥 앙금·퇴적도(底泥)를 제거할 계획이다.

앞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忠州, 安東, 昭陽江등 전국 다목적댐과 용수전용댐에도 연차적으로 조류제거선을 제작진수시켜 내수면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 및 농축업 유기질폐수로 인해 증식되는 조류와 퇴적도(底泥)를 제거하여 수질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국내최초로 가동중인 藻類제거선>





HOYU ENERGY CO., LTD.

〈바편 호유에너지의 상표〉

호남정유(주)

중질유 분해 · 탈황시설 日産 5만배럴규모 추진

湖南精油(株)는 당초 3萬배럴규모의 설비계획을 변경 국내 최대규모인 日産 5만배럴의 중질유 분해시설과 탈황시설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1월 4일 호남정유는 7,600억원을 들여 全南 麗川에 중질유 분해시설과 탈황시설을 각각 1994년 1월과 1996년 1월에 준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공장건설은 첨단기술인 상압중류 잔사유를 직접 접촉분해하여 고옥탄가 휘발유, 경유, LPG등을 생산할 수 있는 미국 스톤 앤드 웹스터사와 기술 제휴로 추진하며 초중질유도 분해 처리할 수 있도록 중국이 개발사용하고 있는 촉매냉각장치를 도입 이 공정에 부착 사용할 계획이다.

포항종합제철(주)

변전소 무인설비 감시시스템 준공

포항제철소의 변전소 무인설비 감시시스템이 216일간(3월 11일~10월 12일)의 공사끝에 준공되었다.

이번 공사의 준공으로 제철소내 4개 변전소와 2개 개폐소에 분산 설치되어 있는 변전설비의 상태감시 및 점검·관리 강화는 물론 각변전소간 연락망 구축과 화재감시가 가능해져, 설비 안정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총 9억 3천만원이 투입된 이 시스템은 폐쇄회로 TV시스템(CC TV SYSTEM), 오토 패징 시스템(AUTO PAGING SYSTEM), 화재감시시스템을

컴퓨터로 연결한 종합 감시시스템으로, 변전설비의 무인운전과 대형사고 예방, 에너지센터 요원들의 종합운전능력 향상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호유에너지(주)

여수에너지→호유에너지로 상호 · 상표 변경

여수에너지(주)는 지난 12월 5일 상호를 호유에너지(주)로 변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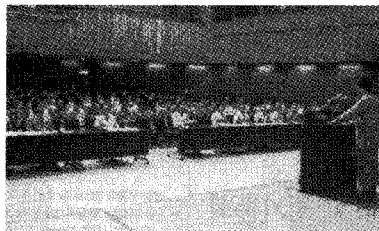
호유에너지(주)는 석유유통시장의 개방과 가격자유화에 대비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적 이미지를 탈피하여 지주회사인 호남정유(주)의 사명에 부합하기 위하여 상호를 변경하였는데 이에 따라 상표도 만다마크에서 STAR CALTEX 및 삼각형 물방울로 변경하였다.

“열린마음” 직원 대토론회 조직활성화의 큰 밑거름 될듯

포철은 지난 9월 10일 직원대토론회를 본사 국제회의장에서 열었다.

‘우리의 마음을 엮시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직원대토론회에는 42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모한 3편의 당선원고를 중심으로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 토론회에서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장인 최명 교수의 사회로 주제 발표자 3명을 포함한 4명의 토론자가 나서 열린 토론회를 가졌다.



〈포항제철의 직원대토론회〉

會員社 人事이동

• 動力資源部

석유조정관 李元
전력국장 金台典
감사관 夫太煥
광무국장 金振模
에너지경제연구원파견 金世鍾
총무과장 林陸基
에너지정책과장 鄭元翹

• 科學技術處

원자력실 원자력정책관 金知鎬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부장 林載春

• 韓國에너지技術研究所

소장 吳正茂
감사 朴鼎五
에너지절약연구센터장 崔壽鉉
대체에너지연구센터장 孫永睦
산업에너지부장 申熙農
에너지환경부장 孫幸翼
기획부장 李萬出

• 雙龍精油(株)

전무 裴尚鎬
전무 柳浩基

• 韓國가스安全公社

이사 李元淵

• 韓國電力技術(株)

수회력사업단 부단장 李東旭

• 大韓石炭公社

기술연구소장 宋善傑

• 에너지管理公團

비서실장 金鍾聲

• 韓國資源研究所

소장 金東鶴
감사 李相光
광물활용연구부장 鄭憲生

포항종합제철은 조직을 발전시켜 나가는 밑거름으로 삼기 위해 이러한 대토론회를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